

제3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현장 ①

“한국불교 미래, 대만불교에서 찾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4월 1~6일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 화이론펬에서 제3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를 실시했다. 이번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는 삼륜종 총무원장 진봉 스님이 단장을, 천대종 감사원 용문 스님이 부단장을 맡았다. 행사에는 천대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산하기관 실무자들을 비롯해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LOTUSCOOP, 반갑다연우아 등 교계 활동가 29명이 참가했다.

불교문화교류단은 1일 타이베이 시내의 자제공덕회 환경보호센터, 2일 타이베이 근교 진산(金山)의 법고산사(法鼓山寺), 3일 화이론펬(華蓮)의 자제공덕회(慈濟供德會), 4·5일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의 불광산사(佛光山寺) 등을 견학하고 대만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본지는 불교문화교류 동행취재를 통해 대만불교의 특징을 찾아보고,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짚는다. 대만불교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불광산사의 각 특색을 연재한다. 노력한 기자



불광산사에서 불교문화교류단과 불광산사 교육생들이 함께 연등을 만들어 우애를 다졌다.

대만은 중국 남쪽에 담배입사귀 모양으로 자리해 있다. 국토면적은 3만 6000㎢로 한국의 경상도 크기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2200여 만명에 달한다. 대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지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식민시대 이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다. 이에 한국과 대만은 경제발전 정도와 기술력이 비슷해 세계 선진국들은 한국과 대만을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밖에 유교와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요소도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은 광복 후 기독교가 자리하면서 기독교가 인구와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대만에서 기독교인은 약 소수에 불과하다.

대만도 국민당 정부 초기에는 기독교의 활동이 왕성하지만 현재는 약 5% 정도만이 기독교인이며 불교·유교·도교의 혼란이 93%에 이른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기독교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은 매우 흥미롭다.

현재 대만 인구 중 불자는 75%이며 그 중 오계(五戒)를 받은 불자가 800만 명에 이른다. 전국에 사찰이 4000여 곳이 있으며, 스님은 9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대만 국민 대부분이 불자라 볼 수 있다.

대만불교 종파보다 각 사찰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중대선사, 법고산사 등은 대만 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 해외 각지에 분원을 설치해 불법홍포하는 식으로 사찰 중심 불교의 특징을 갖는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인구의 절반도 미치지 않지만 불교계 활동영역과 영향력 측면에서는 대국이다. 불교방송이 5개 채널에 이르며 불교 행사

에는 정부수반을 비롯한 불자 수백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날로 확장·발전되고 있다.

#승속 떠난 능력 위주 활동

대만불교에서 한국불교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는 사부대중의 고른 역량 발휘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지계 의식 생활화

출세가 상호 견제 보완

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불교계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비율은 2:3 정도다. 자제공덕회는 비구니 증언(證嚴) 스님이 장건했으며, 불광산사는 각 별원의 주지를 비롯해 본사의 예불집전 및 각종 지도 등을 비구니 스님들이 맡고 있다.



불광산사 심정 스님과의 좌담회

대표성을 갖는 직책은 비구 스님들이 맡지만 사찰 주지 등 실무직은 대부분 비구니 스님들이 맡고 있다. 이는 법랍 위주가 아닌 능력에 따라 직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또 출·재가자가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재가자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띈다. 대만불교는 중국불교가 대만에 자리 잡으며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다. 단 출가자는 재정 관리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재가자가 모두 담당함으로써 재정의 투명화와 철저한 계행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광산사 중정인 성운(星雲)스님의 최초 제자 5명도 재가자로 스님의 일을 돕다가 출가한 경우다. 초대 제자 중 한 명은 현재도 유발 상좌에 해당하는 사고(師姑)라는 직책으로 사찰 재정관리를 맡고 있다. 이처럼 대만불교에서는 재가자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높다.

증언 스님의 자제공덕회도 30명 주부와 함께 시작됐다. 지금도 자제공덕회에서는 시설 안내, 손님 접대 등은 재가자의 자원봉사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자원

봉사가 자제공덕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 또 재가자들의 활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가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철저한 지계, 불교를 사회리더로

둘째는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이다. 출가자는 물론이고, 재가자의 육식 금지 등 불자라면 누구나 계

‘선 교육 후 득도’

함께 공부하며 발심 출가

율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계(持戒) 의식은 먹는데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스님들은 오신채 등을 먹지 않으며, 스님들이 육류와 술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찰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등 재가자와 출가자가 견제의 역할을 한다.



타이베이 자제공덕회 환경보호센터



타이베이 불광산사법당의 참선체행

오계를 수계한 불자들은 육식과 음주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을 사회적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인과 같은 공인들은 공식 자리에서 수계를 받아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한다.

이런 지계(持戒)는 대만의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채식 뷔페에서 드러난다. 일반 식당에서도 채식을 메뉴를 넣고 있을 정도의 수요가 있다. 또 굳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채식 식단이 발달해 있으며 자연스럽게 채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처럼 불자들의 철저한 지계 청정정신으로 대만에서 불교도에 대한 신뢰는 자연히 높다.

불교문화교류에 동참한 용문 스님은 “대만불교에서 불자들이 계율을 꼭 지켜야 할 덕목으로 여기고 실천하는 부분을 한국불교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 사업으로 사회영향력 배가

셋째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문화사업 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의 출가는 ‘선 교육 후 득도’ 체제 하에 이뤄진다. 불학원 혹은 불학총림, 불학연구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출가 희망자는 출가 전에 재가자와 함께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2~6년 과정으로 졸업생은 출가자가 되거나, 재가수행자로서 사회에 나가게 된다. 불광산사 관계자는 “출가자를 앞둔 이들과 재가자 사이에 배움의 과정에서 미묘한 선의의 경쟁관계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출가를 전제조건으로 입학해 공부하는 법고산사 외에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재가자 신분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이가 많다. 그리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가를 앞둔 이들과 함께 공부하다 출가하는 비율이 높다. 불광산사 불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출가하는 재가불자가 80~90%에 달한다. 또 불교계에 종사하고 싶은 재가불자들은 방송이나 신문 발행, 통번역, 포교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불광산사는 16개국에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시설도 마련하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도 활발해 대만불교계는 초·중·고는 물론 일반대학을 설립해 사회 교육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자제공덕회가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세계 4대 골수수술 병원인 자제공덕회의 의료진을 배출하며 대만을 대표하는 의과대학으로 손꼽힌다.

방송과 문서를 통한 교육에도 앞장서 대만의 언론을 선도하고 있다. 불광산사, 자제공덕회를 비롯한 5개 사찰은 각 케이블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 매체에서는 24시간 스님들의 법문,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또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정기간행물과 수 백 종의 불교 서적을 발행하고 있다. 이런 불교기관의 전문요원은 불학원 졸업자들이 맡아 재가자들의 불교학교 입학절기는 대만에서 높은 편이다.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BESTSELLER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임금게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기법과 설치 용이

원터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시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3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 ▶ 방생, 탐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